

## 청인(일반인)에게 필요한 농인의 수화

과 정 : 제12기 핵심리더

교 번 : 50번

성 명 : 고 미 숙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의의와 목적 .....	1
2. 용어정리 .....	2
II. 농인의 이중 언어적인 상황과 수화에 대한 편견 .....	3
1. 농인의 이중 언어적인 상황 .....	3
2. 수화에 대한 편견 .....	4
III. 수화와 농인의 언어 .....	6
1. 농인의 언어와 수화 .....	6
2. 수화 존중의 근거 .....	9
3. 수화기반 농사회와 농문화 .....	11
IV. 각국의 농인의 권리 보장 움직임 .....	14
1. 수화사용 농인의 권리 보장 .....	14
2. 각국의 권리 보장 움직임 .....	15
3. 한국의 농인 언어권 보장 움직임 .....	18
V. 행정의 수화교육 사례 .....	19
1. 전주·남원시청 수화교육사례 .....	19
2. 남원시청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가사례 .....	19
3. 전주시, 청소년 수화경연대회 개최사례 .....	19
VI. 결 론 .....	20
참 고 문 헌 .....	21

# I. 서 론

## 1. 연구 의의와 목적

언어는 인간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지식정보 사회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기에 언어가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요컨대 인간은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농인(deaf people)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가질 권리가 있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농인들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듣고 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집안에서의 가정생활등 모든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TV를 시청 할 때도 자막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웃고 떠들어도 그들은 아무런 내용도 이해하질 못한다. 어느 복지방송에서는 방송을 수화로 통역해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질 않는다.

또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 써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입모양이나 손짓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화통역사가 있지만, 현재까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들의 제1언어인 수화를 언어로 인정해야한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다른 나라를 보면 이들이 장애인이라 차별받는 것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만큼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수화를 언어로 인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나라에서도 해야지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농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농인 사회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농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면 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일반인) 사이에는 언어적 장벽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인은 사회적 소수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의 주장은 농교육의 현장에도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농인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농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농인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수화를 사용하는 소수자인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사는 사회, 공무원들의 수화 배우기도 시작되어할 당위성을 제안할 목적에서 연구되었다.

## 2. 용어정리

### 1) 농인과 청인

본 논문에서 사용할 ‘농인’이라는 용어는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농문화를 형성하는 농사회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청인’(건청인 제외)이라 한다. 그 이유는 농인과 청인을 문화적으로 대등한 존재로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 2)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 이상인 자, 또는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자,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로 정의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를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한다. 청각장애의 정도가 70dB ISO 이상일 때는 농, 35~69dB ISO일 때는 난청으로 구분한다.

### 3) 제1언어

인간이 처음 습득한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제1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간에게 언어, 특히 제1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

의 일부이며,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

## Ⅱ. 농인의 이중 언어적인 상황과 수화에 대한 편견

### 1. 농인의 이중 언어적인 상황

사람들이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실은 농인들이 이중 언어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청각 장애가 있는 농인들은 국어와 수화라는 이중 언어적인 상황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달 덕분에 보청기의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고, 청각 장애 정도가 심한 농인들에게 인공 와우 시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개선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보청기와 의료 기술이 많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손상된 청력을 보상해 줘, 사회 활동에 따른 소통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본 청각 장애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아직 이런 과학 기술로도 청각 장애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청각 장애인들이 많다.

농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수화를 배워야 하고, 또 사회 속에서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인들은 수화와 국어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없다. 둘 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농인들이 평생 농인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청인들 속에서만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인들이 수화만 배울 수는 없다. 농인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국어를 습득해야 한다. 문제는 농(聾)성인들의 국어사용 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정체돼 있다는 것과 수화가 언어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사람들은 국어를 잘 배우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농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1760년에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농학교가 설립된 이래 농교육 분야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농인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 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농교육의 실패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날 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수화에 언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농아동들이 우선 수화를 습득하도록 한다.

농아동들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농아동은 청인 아동과 같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밟지 못한다.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농아동들이 주변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력에 손상을 입은 농아동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화뿐이다.** 구화는 교육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구화를 고집하는 것은 농아동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 구화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교육 방법이다.

구화주의자들이 실수한 것은 수화보다 구화를 우선시하고, 수화는 구화를 배우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러한 구화주의자들의 생각은 농아동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에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수화기본법을 제정해 수화를 하루빨리 연구, 정리해야 한다.** 수화가 농아동에게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화가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때 농인들은 외부 세계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농인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어와 구화를 배우려는 욕구를 가진다. 농인들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 2. 수화에 대한 편견

일반적으로 편견이 가장 심한 장애가 청각 장애이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본인이 수화로 말하기 전까지는 장애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부분만 빼면 겉으로 보이는 나머지 부분이 정상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청각 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장애 정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수화에 대한 편견도 존재한다. 수화는 언어가 아니라는 편견이다.

수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2005)가 발행한 자료를 보면 ‘지구상에는 약 6,000~7,000가지의 구술 언어가 있고, 같은 수의 수화가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청각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는 수화가 있다는 의미이고, 또 각각의 수화는 모두 다르다는 뜻이다. 또한 수화가 청각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언어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수화가 의사소통 매개체로서의 언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문법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법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는가. 수화도 하나의 언어로서 고유한 문법 규칙을 가진다.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농아동의 발달에 학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학부모는 대개 농아동들이 수화보다 구화를 습득하길 바란다. 특수학교에서 수화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한다. 이유는 **아동들이 수화를 배우면 말(구화)을 못 배운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중 언어학에 따르면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워도 두 개의 언어를 모두 모어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로 미루어 농아동이 수화를 배우는 것이 국어 습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로 국어 능력이 뛰어난 농인들이 국어와 수화를 병용하면서도 수화를 잊었다거나 국어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수화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농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수화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의문이다. 수화 언어는 음성 언어와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음성 언어는 음절

단위로 선형적으로 발화해 하나의 담화 덩어리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나 너 좋아해’를 음성으로 발화하고자 할 때 ‘나, 너, 좋, 아, 해’ 순으로 선형적으로 발화하여 하나의 문장을 말할 수 있다. ‘나, 너, 좋, 아, 해’를 동시에 발화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하여 수화는 동시적인 발화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이다. 수화는 시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림은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보여 준다. 즉, 그림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여 준다. 수화는 그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들어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의 여러 요소들 중 중요한 한 가지만 빠져도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2005)를 인용하며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언어학자들이 아직 대부분의 수화를 연구하지는 못하였지만, 수화가 추상적이고 복잡한 완전한 언어라는 점은 분명하다. 어휘가 완전히 개발된 수화는 구술 언어로 토론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즉 일상생활에서부터 인권 협약, 국제 연합의 구조나 핵물리학에 이르기까지, 토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UNESCO, 2005)

### Ⅲ. 수화와 농인의 언어

#### 1. 농인의 언어와 수화

농인의 언어가 왜 수화여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수화(手話 sign language)가 아니라 구화(口話 spoken language)를 습득하면 사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을 활용한 청력 보조 장치(보청기, 인공 와우 등)를 활용하여 농아동에게 어렸을 때부터 청능 훈련, 언어 훈련을 하면 구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지극히 맞는 말



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청력 보조 장치의 혜택을 본 청각 장애인들은 정말 소수이고, 많은 청각 장애인들은 청력 보조 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손상된 청력이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다. 또 설사 청력 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구화를 습득하더라도 대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소통만 가능하다.

언어의 기능은 사무적인 의사소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통하여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고, 장소와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 규범이 있고, 또 사회와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은 언어에 녹아들어 있다. 말하자면 언어 행위는 복잡한 사회적 활동이다. 청각 장애인들이 청인만큼 구어를 습득하고 복잡한 언어활동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수화보다 구화의 획득을 더 중요시한 구화주의 관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1760년 샤를 미셸 드레피(Charles Michel de L'Epee)에 의해 수화법을 기반으로 한 농학교가 설립되었지만 1880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농교육자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of the Deaf, ICED)에서 수화를 기반으로 한 농교육 방법을 배격하고 구화, 독화, 청능 훈련 등을 교육 방법으로 한 구화법이 채택되었다.

그 후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청기가 개발되어 보장구를 이용한 청능 훈련, 언어 훈련, 독화 등에 교육적 노력을 집중하여 농아동의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김병하·강창욱·최영주 1994).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ICED에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Reject all resolutions passed at the ICED Milan Congress in 1880 that denied the inclusion of sign languages in educational programs for Deaf students.

농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화법의 사용을 부인하는 1880년 ICED 밀라노 국제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결의문을 거부한다.(ICED Vancouver 2010)

1980년대에 들어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적 접근(bicultural and bilingual approach, 2bi 접근) 방식이 등장하여 수화법이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2bi 접근

방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농인 부모를 둔 농아동이 청인 부모를 둔 농아동보다 학력, 사회 성숙도, 자주성, 사교성, 감정 표현, 적응력 등 대부분의 발달 영역에서 더 우수하며, 수화가 농아동의 언어 능력, 인지, 사고 능력, 성격 발달, 학력 향상, 자아 개념 확립이나 인간관계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밝혀져 있다(Brasel & Quigley 1977, Brill 1970, Chasen & Zuckerman 1976, Dsselle 1994, Nix 1975, Stuckless & Birch 1997, 최성규 1999에서 재인용).

2bi 접근은 농아동에게 수화를 먼저 습득시켜 외부 세계와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농아동이 소통하는 능력이 갖추어지면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 그러니까 농아동을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어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수화도 국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써 봤자 교육적 성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화법을 다시 도입하여 교육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청각 장애인의 언어 사용실태연구”(2009)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199명 중 수화가 78.8%로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수화로 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화로는 농인끼리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렵고, 또 구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가 있다는 만족감을 갖기도 어렵다. 수화가 대화 매개체가 될 때 농인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어느 청각 장애인의 이야기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릴 때는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장애 때문에 많이 울었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수화를 배우고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옛날에는 제 장애를 수용하지 못했거

든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그렇게 되뇌며 자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이종민, 펜실베이니아 블룸즈버그 대학교 특수 교육과 교수)

## 2. 수화 존중의 근거

2004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면서 ‘한국농아인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었다.

제23조(권리 및 차별 금지)

① 한국 수화는 독립된 언어로서 한국어와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그러나 2008년 4월에 제정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4년 1월 15일 사단 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는 언어다”라는 제목으로 수화 언어 정책 반영 대정부 요청문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수화는 언어다”라는 선언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수화 언어는 음성 언어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 엄연히 언어로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화를 언어로서 인정하기 위하여 규범화 작업 등 정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럴 때 야만이 농인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주목할 것은 ‘독립된 언어’와 ‘대체 수단’라는 단어이다. 수화가 독립된 언어라는 말은 농인들이 주된 의사소통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수화이고 또 수화가 고유한 규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임을 말하는 것이다. 수화가 어떻게 국어와 다른가 하는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수화의 특징을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의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수화는 음성 언어의 대체 수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수화는 음성 언어의 대체 수단’이라는 관점이 특수 교육계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특수 교육 분야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론 가운데 토털 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 TC) 이론이 있다. 이 TC는 원래 동시법(simultaneous communication, Sim Com)과 관련이 있는데 동시법은 쉽게 말하면 ‘문법식 수화’, ‘국어식 수화’, ‘학교 수화’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동시법을 적용한 수화를 선호하는 구화주의자들이 동시법을 활용한 농교육 방법을 고안한 것이 TC였다. 이 TC는 원래 농학생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 주자는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TC의 방법이 동시법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TC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인의 언어를 먼저 습득한 상태여야 하고 또 구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동시법이 청인의 언어 방식을 따른 것이어서 농인들이 따라 하기 어려워했다.

그리고 동시법을 활용하여 독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한다. 즉, 수화의 도움을 받아 독화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TC는 동시법과 구화를 적절하게 활용해 소통하는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TC는 수화가 목적이 아니고 구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화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취급되었다. 이 방식은 훌륭했지만 국어를 잘하는 농인에게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국어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농인에게는 어려운 방법이었다.

농인들은 동시법이 아니라 수화가 가진 고유의 규칙 체계에 기반을 둔 어법을 사용한다. 동시법은 청인의 언어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선형적인 표현 방식이지만, 고유한 규칙 체계를 가진 수화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수화는 고유한 규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이탈한 동시법은 따라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어학회 사건과 위의 이종민 교수의 사례를 상기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할까 한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언어가 민족정신의 총아이자 자존감의 상징임을 웅변해 준다. 따라서 조선어학회 사건은 또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 필자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농인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인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있음을 인정받고 싶고, 이 언어를 통해 자존감을 지키

고 싶어 한다. 흑자들은 국어가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국어는 농인에게 외국어일 뿐이다. 그리고 이종민 교수는 수화를 습득하고 나서 본인이 진정한 인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언어가 인간의 존엄성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 정신이다.

### 3. 수화기반 농사회와 농문화

미국에서 전화기의 발명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벨(Alexander Graham Bell)은 또한 유명한 구화주의자였다. 구화주의라는 말은 수화의 습득을 금지하고 구화의 습득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구화주의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벨의 어머니와 아내는 잔존 청력이 남아 있는 난청인(hard-of-hearing)이었고,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 교육에 헌신하여 말하기와 발성법을 가르쳤다. 그런 가족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벨 역시 청각 장애인 교육에 헌신하기도 했다. 벨은 청각 장애인 교육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모델로 삼았고,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처럼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청각 장애인 교육에서 벨의 관심은 농인들이 청인 사회 속에 통합되는 것이고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구화를 습득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수화가 구화 습득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수화를 철저히 반대하였다. 그리고 농아동들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모아 교육하는 형태의 학교 제도를 반대하였고 또 농인들이 모여 이루는 농사회와 농문화의 형성과 발달도 반대하였다. 심지어 농인끼리의 결혼까지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가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도록 불임 시술까지 강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농인들에게 벨은 공포 그 자체였다(Timothy Reagan 1989).

구화주의자들이 다 벨과 같은 것은 아니다. 벨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 벨이 보이는 행동 특성을 많은 구화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학교에서 교육받은 적 없는 농인 중 어떤 이들은 자기랑 같은 농인들과 어울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가 가진 장애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그 농인에게 투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구화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구화의 습득인데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 같은 농인끼리 만나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까? 농인끼리는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청인에게는 구화로 말을 하면 소통이 가능하지만 농인에게 구화로 말을 하면 소통이 되겠는가? 사실 구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식적으로는 구화를 사용하지만 부모나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는 서로 수화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수화 사용을 금지시키면 같은 농인끼리는 서로 만나지도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같은 농인끼리도 구화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구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농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농인들은 결국에는 수화를 배우게 된다. 수화보다 구화가 그렇게 좋으면 그들이 왜 수화를 배우려 했겠는가.

사람은 자기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끼리도 자기들의 공동 이익의 실현을 위해 모임을 만든다. 어느 나라를 가나 한인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동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농인끼리 모여 모임을 만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보와 의사의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매개체가 수화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농사회와 농문화가 청인의 사회와 문화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인 농인들이 농사회와 농문화를 형성하고 수화를 모어라고 주장하며 사용을 하더라도 그들의 사회와 문화가 청인과 전혀 다른 집단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 사회 내에는 다수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집단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 등을 공유한다. 하지만 고립은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의 공유를 방해한다. 고립은 농인들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여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농인들이 모여 농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농사회와 농문화가 한국 내에서 고립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립되는 원인 중 하나가 청인과 농인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점이다. 청인들은 수화를 어려워한다. 심지어 오랜 경험이 있는 수화 통역사들마저도 수화를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수화 통역사들이 수화 통역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화 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화 통역사들의 수화가 제대로 된 수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화 통역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감할 것이다.

한국 수화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오해와 편견도 받았고 무시되기도 했다. 또 국어의 끊임없는 언어 간섭을 받아 수화의 규칙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 자리에 동시법(Sim Com)이 들어서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동시법은 국어의 문법 체계에 기반을 둔 수화 방식이다. 동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먼저 습득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동시법은 구화주의가 선호하던 방식이었고 구화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수화법인데 그 수화마저도 동시법을 따르고 수화의 고유한 규칙 체계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일이다. 그래서 수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수화가 가진 고유한 규칙 체계가 어떤 모습인지 연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농인에게 수화가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배우기 쉬운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가진 수화를 만들면 농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농인과 청인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어 농인과 청인들이 어울리는 사회통합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 IV. 각국의 농인의 권리 보상 움직임

### 1. 수화사용 농인의 권리 보상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권리를 보상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수단은 수화의 공용어화, 언어 평등법의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수화의 법적 인정 등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수화와 농인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인에 대한 교육보다는 청인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즉 청인에 대한 수화교육과 농문화에 관한 교육을 활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수화교육에는 수화 자체의 교육뿐만 아니라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언어적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는 수화에 대한 오해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가 편한 대로 정보를 제공받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는 많은 청인들이 당연한 권리로 누리고 있다. 농인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인이 '듣지 못하는 탓'이 아니다.

음성언어와 수화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언어적 가치에 위아래는 없다. 인권의 이념은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인간의 언어적 권리 또한 평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청각 장애인들의 생활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청각장애 공동체의 지정언어(제1언어와 같은 자격)로서 수화를 인정함은 주류 문화로의 통합과 완전한 시민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입법과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수화의 공식적 인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존 법률을 수정하고, 새로운 법안의 제안 등을 위한 단계가 된다. 따라서 수화의 공인은 이를 사용하는 수화 사용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구두 언어와 이중 언어(구어+수화) 두 형태 모두를 교육언어로 선택한 학교에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통신 채널을 이용한 일반 및 직업 교육을 수화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 공동체 내에 생활하는 청각장애 소수 집단이 주류 문화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질적 조치들을 이용할 권리 등이다.

이와 더불어, 수화 통역사의 수를 증가시키고, 공공 및 사설 서비스, 교육, 레크레이션 및 사회 행사 등에의 접근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위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2. 각국의 권리 보장 움직임

뉴질랜드하면 장애인 복지 제도가 잘 보장돼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2006년에는 영어, 마오리어와 함께 수화를 세 번째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또한 오클랜드 공과대학교에는 '수화 통역과'가 있어 수화 통역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스웨덴은 1981년 이후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사회통합 정부 위원회는 청각장애인들은 그들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중언어주의란 수화사용자들은 시각과 몸짓을 이용한 모든 수화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스웨덴어-구두언어-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1980년과 1981년 100번 정부 법안 내용)

덴마크는 1991년 이후로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 수화를 청각장애 아동의 초등과정 제1언어로 간주, 수화를 청각장애 아동교육에 관한 교육지도와 의사소통을 위한 제1언어로 공식 제안했다.

슬로바니아공화국 헌법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함께, 수화에 관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기본법 앞에서 동등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2002년, 슬로바니아 수화 사용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에서 26번째로 법령에 의해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다.(슬로바니아 수화 사용 법령은 슬로바니아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과 수화통역사에 관한 권리도 인정)

폴란드는 헌법에 수화를 공식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공공기관은, 법령과 동일하게, 청각장애인들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직업과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69항)

체코공화국은 1998년 6월 11일의 155번 법률에 의해 수화의 동등한 지위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1998년 155번 법률의 내용을 보면 ①법률은 수화가 체코공화국에 살고 있는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임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②진료를 받거나 행정 및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고등전문교육(중등과정 이상의 학교로, 대학은 해당되지 않음) 기관에 다니는 청각 장애 학생들 또한 일체의 비용지불없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슬로바키아는 1995년 6월 26일 시행된 149번 법률은 수화사용의 권리와 수화로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화는 영국 내 거주하는 약 70,000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들의 지정언어로 2003년 3월 18일 영국 정부는 수화를 국가 언어 중 하나로 공인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은 교육 당국에 청각장애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수화의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됨) 또한 고용 및 연금 관리국의 Andrew Smith 국장은 수화 교사와 통역사 양성 교육을 위한 더 많은 자원 제공을 약속하였다.

벨기에는 2003년 7월 3일 결정된 내용대로, 벨기에-프랑스 수화는 벨기에 내에 거주하는 프랑스 커뮤니티의 보건부에 의해 그 지역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로 공식 인정되었다. 이러한 공인은 프랑스어에 이어 청각장애 교사와 통역사를 양성하고 일반 학교 교육에서도 실제 교육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벨기에-프랑스 수화는 기본교육에 관한 법령과 같은 특정한 법문서에도 관련 규정이 언급)

2003년 10월 21일, 수화공인법령은 벨기에 내 프랑스 공동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독일은 수화통역사나 비장벽 언어환경을 위한 전기통신 매체와 같은 통신수단 개발을 일반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7월에 추가로 시행된 세 가지 법령은 최대한 폭넓게 언어장벽 없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연방당국에 의무를 지운다. 법령에 보장된 그들-청각 또는 언어 손상을 입은 -은, 그들이 행정적 문제로 그들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경우, 구두 언어를 지원하는 수화 또는 적절한 의사소통 기구(보청기 등)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전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업무 과정에 드는 모든 서비스 비용은 관련 당국이 충당해야 한다.

리투아니아 공화국 의회는 1991년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에는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되어 있음) 1995년 제정된 1996년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는 것과 관련한 법령은 수화를 청각장애인들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스위스는 최근 들어서야 수화의 공식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1994년에 처음 의회에서 그러한 주제가 거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과학 및 교육과 문화 위원회는 수화의 공인에 관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 제안서에 따르면, 학교 및 직업교육과 수화연구활동, 그리고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연방 정부 심의회에 요청한다. 연방 심의회가 받아들인 그 제안서의 포인트는 바로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아닌, 그들의 통합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수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만큼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기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안 마련을 고려하게 되었다.

핀란드는 1995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명기되었으며, 수화 사용자가 독특한 언어적·문화적 집단으로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개정 이전부터 기초 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수화는 교육 과목 및 모어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또한 교육이나 사회 참가의 기회에는 무료로 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1년에 최대 240시간 인정되어 있어, 일정한

정도의 언어권이 보장되고 있다.

1999년 9월 태국교육부장관이 태국왕실정부를 대표해 결의안에 서명, 태국수화를 태국농인의 국어로 공식 인정했다. 농학교에서 농인을 수화교사로 고용한다. 교사는 태국수화를 학습해야 한다. 농아동이 태국수화에 능숙한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을 것을 보장한다. 고등교육기관에서 농인학생을 위한 수화통역자를 마련한다 등이다.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언어와 문자에 관한 권리’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수화는 독립된 언어로서 일본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목소리를 함께 하는 수화는 일본어로서 취급한다. 청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의 두 가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점자는 일본어의 표기 수단의 하나이다. 시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점자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 3. 한국의 농인 언어권 보장 움직임

2013년 8월 국회에 수화언어법안 발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아 40만 농아인의 가슴을 애타우고 있다.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라는 것을 밝히며 수화연구소, 심의회 등을 설치하고 수화 교육과 통역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해 10월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수화기본법안', 이에리사 의원의 '한국수어법안'이 세상에 나왔다. 11월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농정체성, 농문화를 지원·육성하자는 내용을 담아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내놓았다.

현재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국가 행사를 제외하면 크고 작은 행사에 대개 수화와 문자 통역이 지원되지 않는다. 방송사 뉴스에도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력에서도 뒤처진다.

## V. 행정의 수화교육 사례

### 1. 전주·남원시청 수화교육사례

전주시의 경우는 수화통역 전담 공무원을 두어 현재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 시정 주요 뉴스나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주요 행사장 현장통역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동행하면서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과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남원시는 사회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5월말까지 공무원 수화교육을 실시, 농아인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화에 필요한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노래수화 등을 반복학습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 2. 남원시청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가사례

전라북도와 전북농아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전북수화경연대회(2014.11)가 29년만에 처음으로 남원시 공무원들이 참가할 정도로 행정에서는 작은 복지에 눈을 뜨지 못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배려행정을 하고, 공무원 수화교육이나 수화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조금더 청각장애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 14개 시군의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를 주축으로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화교육을 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다.

### 3. 전주시, 청소년 수화경연대회 개최사례

전주시에는 2,000여명의 농아인이 있다. 2008년 9월에는 전주완산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으로 수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적으로 익힌 수화실력을 상호공유함은 물론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를 일반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수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런 수화경연대회를 통해 전주 시민들에게 수화가 나와는 상관없는 언어가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의 언어, 나도 함께할 수 있는 언어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 VI. 결 론

청각 장애인은 수화, 구화, 필담 등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음성언어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정보를 듣는다. 따라서 수화통역사 없이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TV프로그램이나 한국 영화에 자막이 삽입되지 않아 한국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문화적 공유점을 찾지 못해 의사소통의 단절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단절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각장애인은 청력의 손실로 인해 듣는 능력이 부족하여 교육성취 수준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사회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워 취업을 하는데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그동안 경제적 발전과 함께 양적인 확충에 힘을 기울여 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경감,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외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장애인의 다변화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한 장애인의 욕구가 과거에는 주로 의료와 소득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교육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적 재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명권이

나, 행복권을 누리지 못 할 만큼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나 이번 논문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삼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 많은데, 많은 기본적인 경제문제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장애우들도 우리와 함께, 여가와 흥미와 취미를 가지며 한사람의 인간으로써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감하는 복지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수화 습득을 통해 민원의 사각지대인 청각장애인들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하였으면 좋겠다. 공무원 수화교육을 통해 단 한사람의 군민도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군민 감동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하고, 특히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수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민원실을 찾은 청각·언어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민원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수화교육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국민맞춤 서비스 실천’ 일환으로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구현에 잘 부합되는 교육이며,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길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초·중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육이나 특활활동,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등으로 수화를 선택하여 장애우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어렸을 적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김병하·강창욱·최영주. 청각장애와 언어,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4.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화, 2001.

강주해,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2002.

아베야스시, 농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2003.

국립국어원,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실태연구, 2009  
이영재, 농인의 제1언어 수화, 2013(새국어생활 제23권 제2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발의문, 2013.  
이준우, 수화의 이해와 실제(개정판), 2013